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서 코로나 스트레스 날려요

푸른도시사업소, 자동차·일반 야영장 운영...매주 예약완료 인기몰이 작년 3만1068명 이용...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요금 감면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이 매주 만실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시민들에게 자연 속 여가공간을 제공하면서 매주 예약 완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치열한

경쟁 탓에 예약 시작 1분만에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 13일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야영장 이용객은 3만1068명이며, 2015년 6월 개장 이후 총이용객은 15만9956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만여 명의 시민이 야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다음 달 예약은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다. 야영장 이용 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정오(낮 12시)까지다. 이용요금은 1일 1면 기준 자동차 야영장은 주말·공휴일·성수기(7~8월) 2만원, 평일 1만5000원이며, 일반 야영장은 1만5000원, 1만원이다. 전기료 3000원은 별도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은 이용요금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다만 코

로나19 발생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야영장 57면(자동차 19, 일반38) 중 절반인 28면(자동차9, 일반 19)만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야영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야영장 57면을 전체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첫 아이 임신 계획 부부 광주시 건강검진비 지원

광주시는 "첫 아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부부에게 초음파·자궁질량·정자·난자 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검진비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반기 250쌍, 하반기 100쌍 등 350쌍으로 본인 혹은 배우자가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있고, 첫 아이 임신을 준비 중인 법적인 부부다. 검진은 시열병원·미래와희망 산부인과·프레메디 산부인과 등 3개 협약병원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청년정책관실(062-613-2720·이메일 gjyouth@korea.kr)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2일~3월7일 건축물점검기관 추가 모집

광주시는 "건축물 사용까지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진됐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기존 등록 업체는 새로 등록하지 않고, 신규 등록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2021년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점검기관은 13개 업체, 안전진단기관은 3개 업체다. 모집 분야는 ▲정기점검기관 ▲급급점검기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4개다. 등록자격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1일까지 광주시·자치구·광주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세움터(자치단체 공시사항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 14~18일 수행기관 공모

광주시는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여성 취업지원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보유한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법인이다. 수행기관은 ▲장애여성 구인기업 수요 조사 ▲장애여성 직무교육 및 취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 희망기관은 14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하철 코로나 방역 강화 광주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동차 일제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공사는 질병 차단을 위해 모든 전동차는 주2회, 역사는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열차 손잡이나 수직봉, 역사내 시설물 버튼 등 승객의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수시로 살균작업을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비용 지원 합니다

광주시 일반가정 10만원 29억원 2만6927대 보급

광주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29억원을 투입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만6927대를 보급한다. 지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또는 열량 6만1900 kcal) 미만인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인증제품은 환경표지 홈페이지(정보마당)인증 현황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 1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부담완화를 위해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관내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지원자는 관할 자치구의 공고에 확인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해전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대비 녹스배출량이 12%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효율로 연간 난방비까지 절약할 수 있다"며 "노후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2만16대를 지원·보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산단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광주시는 "산단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산단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월 5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하는 '2022년 산단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은 광주시와 산업부가 공동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하남·점단·평동 산업단지 등 광주시 관내 모든 산단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15

세~34세 청년이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 군복무 기간 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된다. 신청은 청년 근로자가 청년교통비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연중 상시 접수한다. 단, 오프라인 및 기입별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업무를 맡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 나이, 입주계약,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심사해 청년과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발급 신청(신한카

드와 비씨카드(기업은행, 농협은행)) 후 지원금을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유류비,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배현숙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지역 청년의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산단단지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산단단지 내 중소기업의 청년 유입 촉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안전본부, 대선 대비 소방안전대책

25일까지 투·개표소 특별조사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투·개표소 소방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관내 대통령선거 투·개표소 469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작동 확인, 대피시설 확보, 관계자 안전교육 등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방관서, 선거관리위원회,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선거 관련 화재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방관서장이 투·개표소를 찾아 화재안전컨설팅을 하는 현장 행정지도 등에 나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특히 전통시장, 화재경제지구 등 화재 우려지역 순찰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개표소에 소방인력을 고정 배치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특별경계근무도 병행한다. 고만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인력 현장배치를 하겠다"며 "선제적 소방안전대책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A | AIG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